

농어촌공단담양지사,저수지 비상대처훈련

담양=정승균 기자

2025년 05월 19일(월) 17:28



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는 “최근 월산2저수지에서 집중호우 및 지진 등 자연 재난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2025년 저수지 비상대처훈련을 실시했다”고 19일 밝혔다.

이번 훈련은 집중호우로 인한 저수지 월류 및 사면 유실, 붕괴 등의 가상상황을 설정하고 임의적으로 단계별 상황(주의·경계·심각·종료단계)을 부여해 직원들이 대응조치를 실시하는 시나리오로 이뤄졌다.

담양지사 전 직원은 비상대처계획(EAP)을 토대로 ▲상황반 ▲대책반 ▲복구반 ▲지원반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고 임무를 사전 숙지해 훈련에 임했다.

김건경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는 “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 재난 위험이 커져가는 만큼, 실제 비상 상황이 닥쳤을 때 신속,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는 공사의 비상대응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”며 “앞으로도 실전적인 비상대응체계 및 훈련을 통해 안전한 농어촌, 신뢰받는 한국농어촌공사를 만들도록 앞장서겠다”고 말했다. /담양=정승균 기자

담양=정승균 기자

이 기사는 광주매일신문 홈페이지(www.kjdaily.com)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.

URL : <http://www.kjdaily.com/1747643281656367008>
프린트 시간 : 2025년 10월 15일 10:11:16